

# 진안, 제1호 치매안심마을 현판식

### 총 48가구에 가스자동잠금장치 무상으로 설치 경찰서 등 5개 지역기관 대상 치매환자 대응 교육도

진안군은 2019년 치매안심마을 제1호로 마령면을 지정하고 지난 9일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은 진안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들과 마을 운영위원장, 지역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일상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원하는 사회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마을이다.

제1호 치매안심마을인 마령면은 지역사회에서 60세 이상 인구 구성비율과 치매환자 비중 5% 이상, 지역자원 연계 가능성, 인구규모를 적용해 선정됐다.

군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꾀하고 자 치매안심마을의 사업 기획과 운영, 평가에 관련한 의사결정을 위해 주민 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지역리더 11명을 운영위원단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

이다.

마령면 21개 전체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었으며 치매파트너 교육을 진행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건강지도자를 위촉하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치매환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국민건강보험 광주지역본부와 연계하여 총 48가구에 가스자동잠금장치를 무상으로 설치했다.

쾌적한 마을 환경조성을 위한 마을담장 벽화그리기와 경찰서, 119안전센터 등 5개 지역기관을 대상으로 직종별 치매환자 대응관련 교육도 진행했다.

마령면 치매안심마을을 전체 21개 마을회관에 치매예방 수칙 3,333 홍보현판도 부착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진안군 치매안심센터는 거리 홍보 캠페인과 지역 상가까지 확대해 치매환자 대응 교육을 운영하고, 교육을 수료한 기관과 상가를 대상으로 치매안심기관 및 안심업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마령면 원강정마을 송창윤 이장은 "앞보다 무서운 치매에 걱정이 많았는데 진안군 치매안심센터가 든든한 치매 관리 울타리 역할을 해주어 안심된다"고 말했다.

김금주 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안심마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2019년 치매안심마을 제1호로 마령면을 지정하고 지난 9일 현판식을 가졌다.

# 등하굣길 안전 책임질 통학택시 '쌍쌍'

### 진안군, 하반기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 시행

진안군은 관내 중·고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통학택시를 운영한다.

하반기 통학택시 이용 대상자는 관내 12개교 총 197명(중학생 107, 고등학생 90)이다. 수송에는 택시 32대, 25인승 버스가 참여한다.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학택시 지원 사업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 대폭 단축되었으며, 버스 막차시간 문제로 포기했던 아간자율학습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학

생 뿐 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통학택시가 통학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의 발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통학택시를 지속적으로 운행할 계획이며, 군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찾아 다양한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오늘부터 전북도 사회조사 실시

진안군이 오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2019년 전라북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관내 810 표본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이며, 진안군수 직인

이 짝인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1대 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교육, 보건·의료, 주거·교통, 환경, 여가·문화 등 7개

부문 57개 항목이다. 박물관 이용실태 및 음식점업 만족도 항목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조사결과는 전문기관의 분석과 보안작업을 거쳐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자료는 주민 삶의 질과 사회구조 변화상을 파악하여 지역정책개발 및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귀농귀촌인들 이야기 '장수애인'

### 16일 장수 한누리시네마

장수군 귀농귀촌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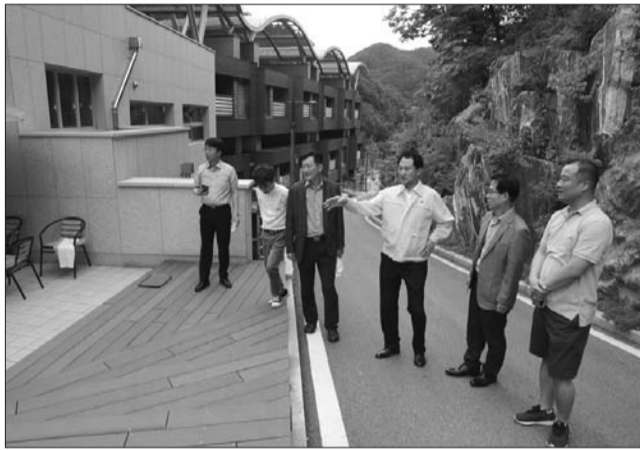
9일 장수군에 따르면 16일 오후 5시 한누리시네마 1·2관에서 장수에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귀농귀촌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은신 감독의 영화 '장수애인' 시사회가 열린다.

영화 '장수애인'은 실제 귀농인

들을 주인공으로 해 전 연령층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로 진솔한 농촌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시사회는 감독과의 만남과 출연진들의 무대 인사도 함께 한다.

영화는 주인공(은신)이 장수로 귀농해 만난 귀촌인(장수애인)들에게 사랑과 행복,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삶을 되돌아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이 주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가운데 1일부터는 현재 5개 읍면에서 진행 중인 주요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무주다운 무주를 만들기 '이열치열'

### 5개 읍면서 진행 중인 주요사업 추진현장 발걸

무주군이 주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가운데 1일부터는 현재 5개 읍면에서 진행 중인 주요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장점검은 공정을 살피며 이월사업을 막고 행정절차 이행상황을 비롯한 예산집행, 관계법 검토, 관리감독 등에 세심함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이경진 부군수를 비롯한 건설과와 산림복지, 문화관광, 맑은물사업소 담당 공무원들은 무주아일랜드 생태파크 조성사업 현장 등 담당 사업지를 찾아 현장을 살폈다.

12일에는 농축산유통과와 안전재난과 담당 공무원들과 금경사지 붕괴 위험지역과 수해상습지, 소규모 위험

시설 정비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경진 부군수는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 월등한 공사품질을 기대할 수 있다"라며 "담당 사업에 애착을 가지는 한편, 더위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군은 지난 5일에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부진사업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으며 부서별로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공정을 분석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는 등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지역 매아리

### 진안교육지원청, 청렴 슬로건 공모전 2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접수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숙)은 지난 9일 교직원과 지역민 간 청렴 공감대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고, 교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에 대한 의지 및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청렴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진안군내 교육가족, 주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청렴진안교육 구현을 위한 청렴 공감대 형성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청렴 슬로건 공모신청 방법 및 신청서는 진안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공모 신청서는 이메일(krs1971@jedu.kr) 또는 우편을 통해 오는 8월21일부터 8월30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접수된 작품의 1차 심사는 진안교육지원청 청렴동아리 '청정하리' 회원이 2차 심사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 1편, 우수 2편, 장려 3편 총 6편을 선정해 시상한다.

수상작은 진안교육지원청의 각종 공문서, 청렴 교육 및 홍보자료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인숙 교육장은 "청렴은 지역 사회와 공감을 통해 형성해가는 문화이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슬로건은 청렴하고 깨끗한 진안교육의 초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공무원노조

### 일본여행 환불 조합원 보상 추진

전국적으로 NONO-JAPAN 운동(일본제품 안사기, 일본여행 안가기)이 벌어지는 가운데 장수군 공무원노조가 여름휴가철 일본여행을 취소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고 있어 화제다.

지난 9일 전국공무원노조 장수군지부에 따르면 일본여행 취소로 인해 환불수수료를 납부한 조합원에게 50%의 보상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조합 간부를 중심으로 매일 아침 일제 불매운동 1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정화수 지부장은 "항일과 애국정신의 표상인 논개의 탄신지 장수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본제품 불매와 일본여행 금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소속 조합원들의 금전적인 손실을 최소화해 NONO-JAPAN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